
남반구 다자주의의 특징:

2013~2014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르헨티나

카를라 마흐달라니

아르헨티나국제연구센터(Organismos Internacionales del Centro Argentin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국제기구 간사이다.

핵심어: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거부권, 다자주의, 말비나스 제도,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한 국가이다.¹⁾ 이 유엔 최고 집행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한 앞선 8회에서²⁾ 아르헨티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요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종의 중용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한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인정-이는 주권과 안보라는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개념에 투영된다-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 발전, 인권 존중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 사이의 중용이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참여를 양적으로만 분석해 보면, 투표가 이루어진 경우에

1)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과 일본이 각각 10회를 차지해 공동 1위이다.

2) 1948-1949, 1959-1960, 1966-1967, 1971-1972, 1987-1988, 1994-1995, 1999-2000, 2005-2006, 2013-2014년에 8회 역임했다(자료출처: 유엔).

아르헨티나는 기구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따른 셈이다.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8회 역임하는 동안 이루어진 595회의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588회 던졌고, 반대표는 한 차례도 없었다.³⁾ 유엔의 최고 심의기구에 참여한 60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기여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협력했다.⁴⁾

1. 2013~2014년 아르헨티나의 의제와 우선순위

1) 2003~2013,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정부의 주요 축

현 정부는 스스로를,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2003-2007)의 취임과 함께 2003년 5월 25일 시작된 “민족적·민중적” 기획의 계승자로 규정한다. 나라를 사회위기로 몰고 간 경제-금융 재앙과 2001년 말 채무 불이행 선언과 싸워야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⁵⁾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의 초기 조치는 대외정책에 관한 한 적어도 세 가지 특징을 띠게 되었다. 이 정책들은 이후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의 두 차례 집권기(2007-2011과 2011년에서 현재까지)에도 지속되었다.

3) 나머지 7회의 결의안 투표는 6회 기권과 1회 불참이었다. 불참은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사안’을 다룬 결의안 S/RES/138 때였다. 이때 아르헨티나는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 따라, 분쟁당사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이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보부의 아르헨티나 주권 침해를 다루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4) 유엔참고서지정보시스템(Sistema de Información Bibliográfica de Naciones Unidas)의 연설 목록에 따르면(1983년부터 현재까지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435회의 연설을 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5) 아르헨티나 위기의 전개와 다자간 신용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Eichengreen(1996, 205-210)을 참조하라.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a) 다자간 신용기구들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와 개혁 요구. b) 전통적인 해외금융 창구와의 거리두기와 끊임없는 새로운 시장 모색. c) 자국 현실을 우선시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남미원뿔시대(Cono Sur)의 새로운 지도자들과 나란히 라틴아메리카로 선회(아르헨티나의 미국 비판은 가령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와의 정치적-경제적 연대에 투영되었다⁶⁾).

그 결과 최근 10년간의 아르헨티나 대외정책은 경제적·정치적 자주성을 위한 사명감, 그리고 남반구 국가이자 남미 국가로서의 강력한 사명감으로 점철되었다. 전략 지정학적(geoestratégico)인 의미에서 남반구 국가-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는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요구 재개를 설명해 준다-이며, 2008년 남미연합(Unasur)과 2011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공동체(Celac) 창설에서 볼 수 있듯이⁷⁾ 지역의 중도좌파·민족주의 물결과 나란히 하는 정치적·이념적 자리매김이라는 의미에서 남미 국가이다. 두 기구는 카라카스 선언이 표명하는 것처럼 지역 정체성 회복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2) 현재의 국제적 의제: 거시경제적 도전과 정치적 충격

2012년과 2013년 현재까지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세 가지 국제적 의제에 대한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소위 ‘헤지 펀드’들과의 외채 협상,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조성된 이란(이 이슬람 국가의 정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가 벌인 일로 보고 있다)과의 갈등국면 타파,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주권 다툼 재개가 그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2013년 말의 국

6)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자금조달 국가가 되었다.

7) 남미연합의 초대 사무총장이 바로 전 대통령 키르치네르였다.

회의원 선거, 현 정치 모델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아르헨티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① 외채: 채권자들의 저항(holdouts)과 거시경제 전망

아르헨티나가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경험한 점진적이고 경이로운 경제 회복-최고 9.2퍼센트에 다다른 해도 있었다(CEPAL 2012)-은 민간 채권(bono privado) 소유자들과의 채무재협상이라는 전대미문의 일과 병행하여 일어났다. 채무재협상 결과 93퍼센트의 채권자들이 원금에서 65퍼센트를 제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공적영역에서 행동역량을 지닌 민간자본과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 국유재산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허약해진 국가경제를 위한 신용자금 조달 측면에서 특히 그렇다.

성장률 전망치 3.1퍼센트(IMF의 라틴아메리카 성장률 전망치보다 0.5퍼센트 낮은 수치이다[IMF 2013]), 90개월째 지속되는 두 자릿수 인플레이, 문제 많은 가격통제 조치, 불투명한 공식통계-최근 IMF는 통계 문제로 아르헨티나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등으로 2013년 거시경제 전망은 실망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장들의 개척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교역 파트너 지도에서 뒷전이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을 향한 대외정책이 최근 몇 달 동안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이 국제금융에서 더 좋은 기회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Dreher, Sturm and Vreeland 2009, 742-757), 이들은 관련 신용기관들의 다자간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2003년부터 이런 차입 방식을 조직적으로 배제했다(처음에는 금융 능력 부족으로, 2005년부터는 IMF에 대한 채무상환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의제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처신에 반영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표가 채무이행 촉구를 많이 하는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의 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이란과 국제 테러리즘

마지막으로는 이란과의 합의라는 놀라운 발표를 들 수 있을 것이다.⁸⁾ 이는 이슬람 국가 및 논란거리인 그 정부와 아르헨티나 간 관계에서 의미심장한 정책 전환이며,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정부 때부터 유엔총회에서 이란의 국제 테러리즘 지원을 조직적으로 비난했고, 이 나라를 1994년 7월 18일 재 아르헨티나 이스라엘인 공제회(AMIA) 건물을 날린 아르헨티나 최악의 폭탄 테러 책임자로 지목했다. 8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두 번째 테러였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아르헨티나는 이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협상 채널 가동을 발표했고, 2013년 1월 27일 에티오피아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르헨티나 국회에 양해각서를 제출하면서 행정부는 그 테러에 대한 사법적 조사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합의안은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어 2013년 2월 28일 근소한 차이로 비준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공동체 단체들은 이를 정의구현에 대한 명백한 포기이자 이란의 이해와 담합한 처사로 간주하여 격렬하게 반발했다.

8) 야당은 아르헨티나와 이란의 교역을 재 아르헨티나 이스라엘인 공제회(AMIA)와 관련된 합의 진진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였다. 실제로 양국 간 교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의미 있는 성장을 거듭했다. 외교부 국제경제센터(CE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대 이란 수출은 2011년 10억 6,800만 달러였다.

9) 첫 번째 테러 공격은 아르헨티나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표적으로 했다. 1992년 3월 17일 일어났으며, 29명의 사망자와 24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사건이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대중의 감정에 대단히 미묘한 영향을 끼칠 사안인데도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합의해 주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합의의 진짜 동기가 새로운 교역 파트너 모색과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이었다는 시각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국제 테러리즘과 핵확산금지조약(아르헨티나는 이 조약에 서명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관련 전반적 기조를 굳이 바꾸지는 않겠지만(아르헨티나는 국제 테러리즘을 다루는 14개 국제 문건 중 12개에 서명했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다수결 결정을 따르고 있다), 이란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심지어 유엔안보장이사회에서도 누그러뜨리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③ 말비나스

말비나스 제도의 주권 회복은 두말할 나위 없이 키르치네르 부부의 정부들에서 대외정책의 기치이다. 특히 각종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많았던 최근 2년은 더욱 그러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인 대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당파적 차이가 없고,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집단적·대중적 상상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주장의 핵심은 말비나스 제도가 자국의 200해리 안에 위치해 있고, 아르헨티나 영토가 속해 있는 남미 대륙의 연장(延長)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33년 1월 3일 영국의 점유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이런 논지로 100년 이상 유지되었고, 심지어 1965년 12월 16일 결의안 A/RES/2065를 통해 유엔의 인정도 받았다. 이 결의안은-그리고 말비나스와 관련해서 채택된 후속 결의안들은- 아르헨티나에는 결정적이다. 양국 간 주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해결을 위한 양자 간 대화 개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탈식민화의 맥락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말비나스 제도의 경우 그 주민들이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된” 주민이기 때문에 자결권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아르헨티나 외교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3자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말비나스 제도 주민의 안녕에 우선하여 양국에(오직 양국에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했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유엔의 지침으로 공식담론에서 되풀이 언급된다.

말비나스 전쟁과 관련해서, 키르치네르 행정부는 1982년의 불행한 전쟁의 책임을 아르헨티나 국민에게는 물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영국이 이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논지는 앞선 민선정부들의 주장보다 강화된 것이며, 키르치네르 정부의 인권수호 정책과 마지막 군부독재(1976~1983)의 범죄 단죄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말비나스 제도의 전략 지형학적 잠재력과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도 재인식, 재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은 전적으로 영토 문제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전략적 입장, 특히 남극과 관련된 전략적 입장의 일환이다. 요약하자면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집단적 정체성에서는 하나의 상처이며, 따라서 중요한 정치 자본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13년 같은 해에-게다가 2013년은 영국의 말비나스 점유 180주년이고,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30년이 되는 해이다- 말비나스 문제를 집권 여당의 결집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발판으로 삼아 양자 간 대화를 촉구한 유엔총회의 결의안들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말비나스

문제는 탈식민화특별위원회에서만 다루어지기 때문에¹⁰⁾, 이러한 방식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용은 그저 선언적 차원에 그칠 것이다. 유엔 최고 집행기구의 규칙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하지만 말이다.

또 한편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여러 대표자들은 남대서양 남부에서 영국의 군사화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서의 핵확산금지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틀라텔롤코 조약(Tratado de Tlatelolco)으로 알려진 이 국제적 합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비핵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9년 4월 25일 발효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우려는 남미연합과 남미-아랍 정상회의(Cumbre América del Sur-Paises Árabes, ASPA) 참여국들도 동조하고 있다. 비핵화 요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핵심 사안이라서, 설사 영국의 행보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물론 유엔에서 우선순위로 다룰 일은 못 되어, 말비나스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아르헨티나 지도부의 의도를 강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2.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아르헨티나: 주요 그룹과 주역들과의 역학관계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그룹에서의 리더십

아르헨티나는 다양한 성격의 다자간 포럼들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전

10) 2012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탈식민화특별위원회에서 연설을 했다. 위원회 역사상 국가수반의 연설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는 말비나스 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유엔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통이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1년 ‘77그룹과 중국’ 포럼의 의장직을 수행하여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부터 다자간 기구들의 개혁에 이르는 의제들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좋은 결과를 냈다.¹¹⁾ 2011년에 보여준 리더십이 아르헨티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 선출에 결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 아르헨티나 대표부가 언급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르면,¹²⁾ 아르헨티나는 전 지구적 의제들에서 주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그룹(Grulac)¹³⁾의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의 지역통합 메커니즘 제도화와 정책 조율에 있어서의 의미심장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는 아직 동질적인 지역은 아니다. 경쟁적인 리더십들이 존재하고, 상이한 입장, 특히 미국과 관계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헨티나의 대 브라질, 대 콜롬비아 관계는 대단히 흥미롭다. 가령,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근의 경제협력 전통으로 서로 유착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권이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려는 브라질의 공개적인 갈망이 적어도 유엔이라는 영역에서 두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

11) 아르헨티나의 리더십 덕분에 볼 수 있는 진전으로는 제4차 유엔비선진국콘퍼런스(2011년 5월 9~13일)의 ‘이스탄불 선언 및 행동계획’(www ldc4istanbul.org)에 포함된 ‘발전국의 비발전국에 대한 지속적 협력 의무’를 들 수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의 대 유엔 외교수칙을 참조하라. <http://enaun.mrecic.gov.ar/content/consejo-de-seguridad-1>

13) 주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그룹은 다양한 주체의 조율과 공감대 도출을 위해 지역의 33개 유엔 가입국을 모은 비공식적이고 비구속적인 대화 그룹이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안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있다.

아마도 이 점이 유엔과 관련된 아르헨티나-브라질 관계에서 가장 갈등적인 지점일 것이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룰라 대통령 행정부(2003~2010)의 거부권 있는 지위에 대한 집념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거부권이 기구의 다자간 성격을 변질시킨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지역의 경제통합과 정책 조율의 진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잠재적 긴장을 표출하고 그와 동시에 억제했다. 물론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에 진전이 없자 예의 이 경쟁의식은 감소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주적' 성격의 개혁-즉,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을 없애는 개혁-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2)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아르헨티나 관계의 중요성

아르헨티나가 이란에 계속 접근할 경우 미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명백하고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거부권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주요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와 이란의 접근이 기구의 결정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즉, 국제평화와 국제안보가 달린 구체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아르헨티나는 기구의 다수 의견을 좇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워싱턴의 국제안보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한 가지 예만 들자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불법적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태도는 아르헨티나의 안전보장이사회 참여 역학에 투영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한 마지막 임기를 예로 들어보자. 양적인 관점에서만 볼 때, 투표에 이른 158건의 결의안에서 아르헨티나가 다수 의견에 동조한 것은 99퍼센트에 달

하고, 단 2건만 동조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기권한 경우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대외정책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선순위 중에서 대미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문제에서 미국의 '중립'-혹은 비개입-을 긍정적으로 여겨 이 세계열강이 유엔의 말비나스 결의안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부각시켰다.

이란에 대한 접근이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이란 핵 프로그램 같은 또 다른 전 지구적 의제를 관련 입장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아르헨티나가 확고한 핵확산금지정책 옹호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분쟁들과 관련해 영토주권 수호 입장은 강화시킬 전망이다. 한 가지 예가 시리아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인권과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된 불간섭 원칙 사이의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3) 평화 유지

아르헨티나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50년 이상 적극 참여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찰과 군 인력은 유엔의 14개 평화유지 활동 중 6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병력을 지원하는 114개국 중 28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엔의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활동인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에서 아르헨티나 부대의 기여가 전체 파견 인력의 67퍼센트를 차지해서 아르헨티나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제일 두드러지지만,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은 아르헨티나 대외정책에서 일관된 것이고 최근 강화되어 왔다. 2006년부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남미의 십자군'(Cruz del Sur)으로 명명된 평화유지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갈등 가능성의 상존으로 대립하던 양국군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평화유지 사명에 대해 전통적

인 주권 존중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의무 사이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 이외의 활동에 대한 대규모 참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93년 시작되어 최근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A/RES/67/84를 통해 추인된 소위 ‘하얀 헬멧’ 등의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갈등이 끝난 지역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3. 아르헨티나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아르헨티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에 분명하게 찬성하는 입장이다. 즉,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숫자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업무 방식을 질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지지한다. 아르헨티나는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 혹은 ‘커피클럽’으로 명명되는 그룹¹⁴⁾과 함께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폐지 및 투명하고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지한다. 아르헨티나의 ‘합의를 위한 단결’ 그룹 참여는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는 브라질의 리더십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업무 메커니즘의 민주화에 대한 강조는 아르헨티나의 입장이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잠재적인 경쟁의식 때문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 집행기구의 실질적인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통합적이고 조율된 입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이 비공식 그룹에

14)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는 국가들에 반대해서 이탈리아 주도로 결성된 모임이다.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커피클럽’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우리나라, 북한, 파키스탄,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옮긴이

의거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개혁 제안들과 관련해서도 열린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다자간 포럼 참여, 평화와 안보 분야의 협력, 전면적인 유엔지지 노선을 견지했다. 그래서 ‘주권에 입각한 합의’라는 의미에서의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2013-2014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 가지 성격을 아르헨티나 대외정책에 부여했다. 새로운 시장들의 모색, 비전통적인 연대, 정치 의제에서 라틴아메리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영국과의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다자주의는 지극히 남반구적-아르헨티나가 남(南)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전략 지정학적인 견지에서 핵심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고 남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지구적 평화와 안보에 협력하지만,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지역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_ 우석균 옮김

원제와 출처

Carla Majdalani. 2013.

“Peculiaridades de un multilateralismo austral: Argentina en el Consejo de Seguridad 2013-2014.”

Nueva Sociedad. 246, pp.4-13.

참고문헌

아르헨티나 외교부. “Misión Argentina ante las Naciones Unidas.”

<http://enaun.mrecic.gov.ar/content/consejo-de-seguridad-1>

CEPAL. 2012.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1-2012. Santiago: CEPAL.

Dreher, Axel, Jan-Egbert Sturm y James Raymond Vreeland. 2009. “Global Horse Trading: IMF Loans for Votes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European Economic Review* 53(7): 742-757.

Eichengreen, Barry. 1996. *Globalizing Capital: A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Washington, D.C. July 23.
www.imf.org/external/pubs/ft/weo/2013/update/01/index.htm

United Nations Conference. 2011. “Declaración y el Plan de Acción de Estambul de la Cuarta Conferencia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Países Menos Adelantados.” 9-13 May.
www ldc4istanbul.org